

CJ, 연일 ‘젊은 회사’ 파격 행보… 내부선 성장통 ‘진땀’

올해부터 임원 단일 직급 운용
일각선 지나친 성과주의 우려
“직원들이 받아들일 시간 필요”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이 내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에 변화를 꾀하며 ‘젊은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임원 직급을 단일화하고 거점 오피스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이는 수평적 조직문화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들의 역량을 끌어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조직문화 변화를 바라보는 내부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CJ는 올해부터 사장, 총괄부사장, 부사장, 부사장대우, 상무, 상무대우로 나눠져 있는 6개 임원 직급을 ‘경영리더’란 단일 직급으로 통합했다. 기존 대기업 그룹 가운데 임원 직급을 2~3 단계 까지 축소한 사례들은 있지만 사장급 이하 임원들을 단일 직급으로 운용하는 것은 CJ가 처음이다.

경영리더의 보상과 직책은 역할과 성과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성과를 내고 맡은 업무범위가 넓은 임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빨리 주요보직에 오르게 되는 것.

체류 연한에 관계없이 부문장이나 C

EO로 조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역량 있는 인재의 조기발탁 및 경영자 육성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CJ는 2000년 국내 최초로 ‘님’ 호칭을 도입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안착시켰다. 2012년에는 입사 후 10년 만에 임원이 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CJ 관계자는 “그룹의 인적 구성이 젊어지고 있는 만큼 인사제도나 조직문화도 구성원 특성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될 MZ 세대가 원하는 ‘공정한 성장기회’를 구현할 제도적 기반이 승진단계를 줄이고 성과, 역할을 중시하는 인사 조직문화 구축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차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에



CJ는 올초부터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공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 ‘CJ Work On’을 도입했다.

한편 CJ는 이달부터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 ‘CJ Work On(CJ 워크 온)’ 도 도입했다. 수도권 CJ 주요 계열사 사옥을 거점화해 서울 용산구(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서울 중구(CJ제일제당센터), 경기 일산(CJ LiveCity)에 160여석 규모로 시행된다. 향후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비롯해 경기, 제주도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인재들이 자율성에 기반해 스스로 업무 환경을 설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있다는 것이다.

계열사 직원 A 씨는 “MZ 세대라고 개편한 인사제도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승진하지 못하거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도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주의의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동료간 과열된 경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직급을 통합하고, ‘님’ 호칭을 쓴다고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되지는 않는다”라며 “직원들이 제도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의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작비 100억도 안 아깝다”… K-예능, OTT 날개 달고 ‘훨훨’

‘솔로지옥’ 넷플릭스 톱 10 진입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흥행가도

넷플릭스의 ‘솔로지옥’이 국내 예능 중 최초로 넷플릭스 TV 쇼 세계 톱 10 순위에 진입하는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의 K-예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쿠팡플레이·티빙 등 OTT들은 최대 제작비 100억원이 넘는 K-예능 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순위권에 안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 예능은 그동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지만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 ‘솔로지옥’ 전 세계 TV 쇼 5위 기록

넷플릭스의 솔로지옥은 넷플릭스의 3일에서 9일까지 최근 주간 순위 차트 중 비영어 TV 부문 4위로 집계됐으며, 지난 3일에는 전 세계 TV 쇼 부분 5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예능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체 에피소드가 공개된 8일에는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 눈에 띄었다. 8일 홍콩·일본·모로코·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한국·태국·베트남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영국에서도 7위와 8위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솔로지옥은 지난 8일 7, 8회를 공개했는데, ‘최종커플 다 잘 어울린다, 대박’, ‘솔로지옥 평생 보고 싶다, 시즌 2 도 해주세요 ㅠ.ㅠ; 같은 반응을 얻으면서



성황리에 종영했다.

솔로지옥은 제한된 상황에서 본연의 매력에만 집중하는 ‘지옥도’와 둘 만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천국도’를 오가며 변하는 솔로 남녀들의 감정을 담아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한 몰입도를 선사했다. 또 자신감 넘치고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출연자들의 저돌적인 감정 표현은 매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기에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는 진심이 200% 담긴 리액션과 턱월한 공감 능력으로 소소한 웃음을 선사하며 MC로서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솔로지역은 매주 토요일 1화부터 최종화가 공개될 때까지 넷플릭스 ‘한국 톱 10 TV 프로그램’ 순위권에 안착하는 등 연신 높은 화제성을 입증해왔다.

또 넷플릭스의 ‘신세계로부터’는 유토피아에서 생존 미션을 그려내며 예능계의 ‘오징어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남 거제 외도에 가수 이승기, 그룹 ‘엑소’ 카이, ‘젝스키스’ 은지원, ‘슈퍼주니어’ 김희철, 탤런

트 조보아, 개그우먼 박나래 등 총 6명이 로망으로 채운 집을 지었다.

가상의 유토피아를 설정하고 반복과 경쟁, 협력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며 이에 응당하는 돈을 가지고 섬을 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김태호 PD는 넷플릭스 데뷔작 ‘먹보와 텔보’ 외에 넷플릭스에 새로운 예능 1~2개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먹보와 텔보’는 비와 노홍철이 바이크 여행을 다니며 맛과 멋을 찾아다니는 로드트랩 버라이어티쇼이다.

◆ ‘SNL 코리아’ 해외에서도 인기

당초 tvN에서 방영되다 지난해 쿠팡플레이로 돌아온 ‘SNL 코리아’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4년 만에 부활한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의 시즌 1 제작비는 총 12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총 10부작으로 매회 12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특히 tvN에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방송됐을 때와 비교하면 제작비는 10~12배에 달한다. 첫 회 이병헌이 등장했으며 하지원, 류기록했다.

조정석, 윤계상, 조진웅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65만명 선에 그쳤는데, 지난해 9월 SNL 코리아를 방영한 후 이용자 수 200만명을 넘어서졌다. 지난달에는 SNL 코리아 시즌 2와 김수현 주연 드라마 ‘어느 날’을 공개하며 이용자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SNL 코리아는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웹 예능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NL 코리아는 현재 시즌 2가 방영 중이다. 미국의 장수 예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의 판권을 사들여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다. 방송사 시절에는 각종 심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쿠팡플레이로 플랫폼을 이동한 후 한국만의 매력을 뽑내고 있으며 미국 원작의 멋까지 살리고 있다.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를 선보이며 흥행가도를 달리는 만큼 정식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티빙에서 방영한 ‘환승연애’도 큰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다. 여러 이유로 이별한 커플들이 모여 지나간 사랑을 되짚고 새롭게 사랑을 찾아나가는 연애 리얼리티로 지난 한해 티빙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티빙의 유료 가입자수 증가에도 큰 몫을 했고, 10주 연속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은행연합회
코픽스 일제히 상승
주담대 금리 오른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 1.69%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17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69%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p) 올라갔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지난해 6월(0.92%)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8월(1.02%)부터는 1%대로 안착했으며, 11월은 기준금리 추가 상승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최대폭인 0.26%p 치솟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0%로 같은기간 0.11%p 올랐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는 0.09%p 증가한 1.03%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